

# 힘겨운 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전주시-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은행, '전주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협약 재원 80억원 활용 총 1200억원 규모 대출 실행... 3년간 3% 이자도 지원키로

전주시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더불어 성장하고 골고루 잘 사는 전주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시는 지나간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은 '3고(高)1저(低)'의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워주기 위해 올해 20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를 2년간 1200억 원으로 60배 늘리고 이자도 지원한다.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3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전북은행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80억 원을 출연하고, 지난 4월 (주)문장건설이 '전주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부출연 기본협약'에 따라 출연한 8900만 원을 더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3개월 이상인 개인신용평점 505점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시는 3년간 발생한 3%의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과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한 거치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증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 지점에서 오는 10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해 초 실시한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이 일주일 만에 마감되는 걸 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함께 뜻을 모아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큰 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상과 보증 한도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해소와 성장·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우범기 시장,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동참

###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목 받아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챌린지 참여

우범기 전주시장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우범기 시장은 3일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지자체의 방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달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당되며, 이들 2개 지자체는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확대돼 방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 시장은 앞서 홍보 챌린지에 참여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날 전북 발전과 고창·부안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홍보 챌린지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동참하게 됐다. 우범기 시장은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 등 관련 사고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

해서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많은 시민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 최대 70% 지원

### 전주시, 쾌적하고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 위해 20일까지 2차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전주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지난 3월 1차 모집과 동일하게 △화장실 개·보수 △세면대, 변기 등 화장실 위생관리설비 교체 등으로, 시는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 개선에 집중해 음식점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16곳 정도의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최대 70%(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업소는 전체 시설개선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환경위생과(현대해상8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속적인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도시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오는 8월 1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지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올해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는 2,840건이며, 시설물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과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여부, 사용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일괄계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휴

업·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공실일 경우 미사용 신고를 통해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전수조사 시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협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하반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3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하반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은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11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1:1 매칭해 일자리 제공 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돕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근무지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자국어인 영어, 중국어 등을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300여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1일 4시간 주 4회 가르치며, 이를 통해 해당 아동들에게 외국어 학습과 다양한 외국문화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완산구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외국문화전도사가 가능한 외국이주여성

및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도 22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외국문화전도사로서 활동한 바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런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박석호 대표 보석 신청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달 30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중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 측은 "(피고인이)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 자금 71

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30일 구속된 뒤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한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일 열린다. /뉴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